

Role of Chemotherapy for Oropharyngeal Cancer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치료방사선과학교실, 이비인후과학교실

허대석 · 조요한 · 김태유 · 방영주 · 김노경 · 우홍균 · 성명훈 · 이철희 · 김광현

배 경 : 구인두암에서 선행 항암화학요법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.

방 법 :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대병원 내과에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과거력이 없는 선행 항암 화학 요법을 받은 두경부 암 환자의 자료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 항암치료는 5-FU 1,000mg/m² infusion for 12 hours, cisplatin 20mg/m² iv Day 1-5(q3 weeks)를 3 cycles을 실시하였다.

결 과 : 선행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두경부 암 환자는 302명이었고 부위별로는 비인두암 126명, 구강암 52명, 하인두암 43명, 구인두암 31명, 비강암 27명, 후두암 22명, 기타 1명이었다.

이 중 구인두암 환자 31명은 남녀비가 29:2였고 부위별로 편도선 19명, 인두 8명, 연구개 3명, 혀 기저부 1명이었다. 평균 연령은 56.9세(34~72세)였고 대부분(28/31) 편평상피세포형이었다. 병기는 3기가 7명, 4기가 24명이었다. 항암제에 대한 반응은 평가가능한 27명중 23명(85%)에서 있었다. 부위별로 살펴 본 항암제 반응률은 구인두암이 85.2%, 하인두암이 87.7%, 후두암이 75%, 비강암이 51.9%, 비인두암이 85.6%, 구강암이 85.7%로 나타났고 비강암이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못했다($p=0.07$).

전체 두경부암 환자의 5년생존율이 66%였고 5년 무병 생존율이 40%였다. 이중 구인두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67.4%, 5년 무병 생존율이 46%였다.

무병 생존기간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부위, 조직형, 병기가 있었고 전체 생존 기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병기와 조직형이었다.

결 론 : 구인두암에서 선행 항암화학요법은 높은 반응율을 보였고, 대다수의 환자에서 organ preservation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유효한 치료법이었다.

Table 1.

		Oropharynx	Oral cavity
Response to chemo	CR	2/27 (7%)	3/49 (6%)
	PR	21/27 (78%)	39/49 (80%)
Local control	Surgery	3	25
	RT	22	18
Failure	Local	3	9
	Regional	6	4
	Distant	0	1
Survival	5yr OS	67.4%	59.4%
	5yr DFS	45.6%	54%
		31	52